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6주년 기념식」

－ 祝 辭 －

2018. 5. 31.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1 축하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올해로 설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5월, 17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수행방식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을 기점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 경제의 동량으로 성장해 나갈 청년층에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13년 3월에는 창업보육 환경이 미흡했던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합 창업생태계 허브인 D.Camp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D.Camp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수행하고 유망한 창업기업을 직접 선발·보육하는 등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Camp 출범 이래 다양한 창업보육기관들이 연달아 출현하면서, 창업생태계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자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생태계를 싹틔우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써 주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관계자와 출연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2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정부는 우수인력이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먼저, 금년 4월부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과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인들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업과 재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창업인 여러분들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여 창업 과정에서 꿈꾸어 온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② 다음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혁신모험펀드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각 단계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혁신모험펀드의 조성·운영 과정에서는
민간 중심의 창업·벤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중심의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혁신모험펀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경안이
통과·확정된 만큼, 연내 추가펀드가 결성되고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포 소재 공공기관(舊신보사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강북권에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D.Camp를 기반으로 강남권에 창업생태계가 이루어졌듯이,
마포에 청년혁신타운이 조성되면
강북권에 여의도, 상암, 신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청년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청년혁신타운 조성 과정에서
D.Camp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말씀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핼코의 CEO 「모하메드 엘 에리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득, 고실업 등 새로운 경제 질서와 기준이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뉴 노멀’[※]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모하메드 엘 에리안, 《새로운 부의 탄생 When Markets Collide》, 2008년

- ▶ ‘08년 이전 규제완화, IT기술 발달, 파생상품시장 확대 등으로 고위험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함
- ▶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서의 이탈 등이 나타났으며,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소비위축 등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통칭하여 ‘뉴 노멀’이라 함

한편 각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시대정신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드 슈밋」 회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을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16년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7년 주제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 리더십의 역할 중 첫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논의

실제로 지금 전세계는 전통적인 제조업·서비스업과 IC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新기술의 융·복합이 가져오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축적의 길」에서
우리 경제에 도전적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량이
갖추어 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인
끈적한 지식(sticky knowledge)이 축적되어야 하며
시행착오의 시간을 참아주는 인내심 있는 금융(patient capital)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고 속에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혁신창업을 이루어 내고,
스케일업(scale-up)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은 ‘창업-성장-회수’ 단계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면서
창업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이 시행착오를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모험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연대보증 폐지,
창업과 스케일업 과정에서 금융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그 어느 정부보다 실천적으로
창업·벤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제도들이 창업생태계 내에 차근차근 정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끈기있게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화된 창업지원기관이 사실상 전무하던 시기에 출범한 D.Camp도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완성시키고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